Speech

P연 설 문

2018. 10. 4

마르쿠스 오스터

쾰른메쎄 부사장

38. International
Dental Show Cologne
12.-16.03.2018
www.ids-cologne.de

내빈 여러분,
하이바흐 박사님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저도 쾰른메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국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쾰른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 치과 산업 전시회인 IDS를 설명 드리고자 마련된 오늘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발표한 하이바흐 박사도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독일 치과기재산업협회(VDDI)와 쾰른메쎄는 세계 최대의 치의학 및 치과 기술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벌써 몇 달 전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쾰른메쎄와 VDDI는 2019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제 38회 IDS에 업계의 모든 관계자 분들을 초청합니다. 전세계의 치과산업 임직원들은5일에 걸쳐 진행되는 IDS에서 최신 제품 및 기술 그리고 업계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연구소와 실험 기관은 첨단 제품과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이곳에서 직접 경쟁합니다. IDS는 VDDI 산하의 사업 조직인 독일치과산업진흥회(GFDI)가 주관하며 쾰른메쎄가 주최합니다.

IDS는 2017년에도 다시 한 번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60개국에서 온 2,305개의 참가사가 쾰른에 모여 첨단 역량을 선보였는데 참가사 수는 2015년보다 100 개사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648 개사는 국내 참가사, 나머지 1,657 개사는 해외 참가사로 해외 비중은 72%에 달했습니다. 또한 156개국에서 155,000 명의 방문객이 쾰른을 찾았는데 이는 2015년의 151개국 139,000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외 방문객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2019년 IDS를 살펴보기 전에 기록적 전시회였던 IDS 2017을 영상 자료로 보겠습니다.

IDS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에 다들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VDDI와 쾰른메쎄는 IDS의 비약적인 발전과 새로운 기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차기 전시회를 준비하는 우리 두 조직에게는 일종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IDS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고 또 치과 업계에서 누리는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안일한 태도가 아닌 다방면으로 업계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이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참가사와 방문객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IDS 주관자인 GFDI는 IDS를 5개의 분야로 간결하게 분류하고 각 분야에 핵심 특성을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전략 개발을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IDS의 성공을 지속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컨셉과 컨텐츠를 구상합니다.

IDS의 목표는 업계를 리드하는 세계적 전시회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막일까지 다섯 달 이상의 넉넉한 시간이 남았음에도 이미 2017년 전시회 참가 기록을 상회했으며, 지금도 세계 최고의 치과 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기록적 전시회였던 2017년의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현재까지 58개국에서 1,700여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했으며 이 중 70%가 해외 참가사로 IDS의 높은 국제성을 잘 보여줍니다.

참가사의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탈리아, 한국, 미국, 중국,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회에서도 해외 국가관이 구성되는데 현재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러시아, 스페인, 대만, 터키 및 미국 등 19개국의 국가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치과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비즈니스 플랫폼인 IDS는 한국 참가사들과 전문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첨단 치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이유로 치과의사, 치과병원 및 랩, 기공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최신 치료 기술과 트렌드를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사는 IDS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IDS 2019에도 지난 IDS 2017에서처럼 다수의 한국 기업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수 기업들이 이미 개별 부스를 신청했으며 세계 최대의 치과 기술 전시에 참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텍, 오스템, 신흥, 레이 덴티움 등이 있습니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관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럽 및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IDS에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IDS가 혁신과 시장 트렌드의 플랫폼이자 해외영업 마케팅에 필수적인 주요 비즈니스 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최신 정보를 얻고 싶은 전문가라면 쾰른의 IDS 방문은 필수입니다.

전시홀 5의 추가 개방으로 증가한 참가사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곳에는 소비자용 구강예방과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배정됩니다. 전시홀 5은 방문객의 자연스런 동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홀 5와 10사이에 위치한 '모바일' 출입구와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 출입구는 동쪽, 서쪽, 남쪽 출입구와 함께 전시 기간 중 개방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부 주차장으로부터 셔틀을 타고 이동한 방문객들은 이 출입구를 통해 전시 장으로 진입합니다. 전시홀5이 이번 전시에 편입됨에 따라 IDS 방문객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입니다. 통로가 넓고 밝은 조명으로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전시홀 배정의 결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동선 구성이 가능하여 특정 공간에 방문객이 집중될 우려가 적습니다. 이번 IDS에는 전시홀2, 3, 4, 5, 10 그리고 11을 사용하며 총 전시면적은 170,000 m^2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시 면적 역시 지난 번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도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IDS는 이미 세계를 리드하는 국제적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데다가 업계에 '입소문'이 나서 방문객에 대한 전망 또한 낙관적입니다. IDS 2017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5 대비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중남미(54%), 동유럽(44%), 중동(32%), 아프리카(32%), 아시아(29%) 등입니다. 북미(17%), 유럽(14%)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방문객 수 국가 순위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터키, 벨기에, 미국, 브라질, 중국 등입니다.
IDS 2017의 방문객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지난 번 방문객들은 전시회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응답자의 3/4 이상이 IDS 2019를 다시 방문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업계를 망라하는 여러 분야에서 출품된 수많은 신기술과 제품을 접한 독일 방문객의 76%와 외국인 방문객의 82%가 전시회를 "좋다" 또는 "아주 좋다"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내년 3월의 전시에 대한 반응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개막일인 2019년 3월 12일에 개최되는 "딜러스 데이(Dealer's Day)"도 이런 낙관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딜러스 데이는 유통과 무역회사 관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딜러스 데이에 방문을 하면 훨씬 차분한 분위기에서 구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테마로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더 나은 삶의 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더 효과적인 경영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치과산업도 디지털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디지털로 생각하고,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IDS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 정보 플랫폼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다양한 영상 자료를 갖춘 이 사이트는 검색기능도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용 앱에는 참가사 명단을 비롯하여 원하는 참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홀 검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IDS 관련 정보, 뉴스레터 등도 이 디지털 "look & feel" 앱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365및 보도진을 위한 온라인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매치메이킹 툴을 이용해서 참가사와 방문객은 개최 전, 또는 전시회 후라도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동선을 최적화하여 참가사와 미팅을 잡을 수 있는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는 개막 전 및 개막 후 보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DB는 전문미디어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IDS에 전시된 모든 신제품을 간략히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스에서는 다양한 라이브 데모, 프레젠테이션 등이 제품 전시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은 '스피커 코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사들은 부스 내 제품 전시 외에도 강연 및 프레젠테이션 등의 수단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시 한 번 다가갑니다.

IDS는 매 2년마다 전 세계에서 180,000여명이 모여드는 치과업계의 자석과 같은 행사입니다. 하루만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 여러 날 IDS를 참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IDS의 참가사와 방문객들은 쾰른을 내 집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시 참가나 여행 계획이 편안하게 진행되며 체류 기간 또한 쾌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IDS를 찾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또한 편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쾰른으로 오시는 길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쾰른은 독일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이며 쾰른을 둘러싼 지역은 유럽 경제의 심장부로, 당연히 교통의 요충이며 세계 각지로 연결되는 수송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쾰른에서 항공편으로 한 시간 거리 안에 1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 GDP의 40%를 담당합니다. 쾰른/본 공항은 세계 100여개 도시와 직항편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고속철도인 ICE를 이용하여 인근에 자리잡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브뤼셀, 뒤셀도르프 등 4개 국제공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 쾰른 전시장의 최대 강점은 아마 ICE가 정차하는 "쾰른메쎄/도이츠" 역이 전시장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매일 1,700 편의 열차가 편리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마지막 부스설치/철거 날 포함) 동안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참가사 임직원과 방문객들이 체류할 장소가 쾰른 시내 및 주변 지역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쾰른/본/뒤셀도르프 지역은 이런 수요를 소화할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S 개최 기간 중에는 라인 강 위에 떠 있는 30여 척의 선상호텔이 추가적인 객실 공간을 제공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민박으로부터 5성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 및 수준의 숙박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쾰른 지역의 탁월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편리한 전시장 출입을 경험한 방문객들은 이 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쾰른에서 뒤셀도르프나 본 같은 도시까지는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므로 IDS를 찾으시는 분들은 쾰른 전시장과 철도로 직접 연결되는 주변 소도시(뒤렌, 레버쿠젠, 졸링겐, 트로이스도르프, 지크부르크, 헨네프)에서도 다양한 숙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에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요구에 최대한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DS 참관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인구 330만을 포용하는 쾰른 지역을 커버하는 교통망인 라인-지크 네트워크(VRS)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IDS부터는 무료교통 이용이 라인-루르 네트워크(VRR)까지 확장됩니다. 루르 지역에는 총 85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쾰른에 가까운 도시인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 에센, 겔젠키르헨, 뮐하임, 도르트문트 등 대도시 지역에 숙소를 정하셨거나 뒤셀도르프 공항을 통해 입국하시는 분들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인 인터레지오 및 기타 근거리 교통망을 이용하여 쾰른 전시장까지 무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ID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시회 참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없이 숙소 예약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는 쾰른 시내 및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협력 호텔 외에도 B&B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개 객실 이상의 그룹 예약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여행 계획 수립 시 또는 호텔 예약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로 알려주시기만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IDS 홈페이지에서 왼쪽의 "Travel and Accommodation"을 선택하신 후 이 화면 오른쪽의 write

an e-mai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쾰른메쎄를 대표하는 라인메쎄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각국에 6개 자회사와 86개 대표사무소를 거느린 쾰른메쎄는 세계 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는 쾰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고객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 좀 더 편안하게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인메쎄의 직원들은 쾰른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IDS의 핵심입니다만 참가사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서 깊은 대성당의 도시인 쾰른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친절한 코스모폴리탄 시민 100여만명이 모여 사는 쾰른의 도심은 전시장과 매우 가까우며 쾰른 시민의 젖줄인 라인강만 건너면 됩니다. 방문객들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쾰른의 문화 전통뿐만 아니라 수많은 레스토랑, 호프집, 펍 등에서 “쾰른 라이프스타일”을 한껏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오늘 기자간담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VDDI와 쾰른메쎄의 모든 직원들은 내년 3월에 여러분을 쾰른에서 맞이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tus:09/2018
Initials:2911 - cl